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WILD FOLK

가제 : 와일드 포크

저자 : Sylvia Linsteadt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거대한 철 장벽으로 갈라진 도시와 시골, 두 세계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결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고아 소년과 소녀, 그리고 인간을 닮은 동물들의 신비한 탐험**

사람과 동물, 자연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던 평화로운 시대가 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 모아 욕심을 채우려는 존재들에 의해 금속으로 된 장벽이 세워진 후, 벽의 안쪽 ‘도시’와 벽 바깥쪽 시골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다 망가져버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시골의 궁핍한 반면, ‘몰락’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환경 파괴 이전에 농약을 최대한 비축해둔 도시는 아직 그 농약으로 식량작물을 길러서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불균형적인 암울한 세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신비한 존재가 마침내 해결에 나선다. 벽이 세워진 후 시골에 머물며 평화를 되찾으려 애써온 반인반수의 생명체, ‘와일드 포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태초에 지구와 모든 생물을 만들어낸 귀중한 자원인 ‘스타골드’를 도시가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하는 이상 와일드 포크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현 상태보다 갈등과 대립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위협으로 여긴 도시의 지배층 ‘별의 목사들’이 시골을 아예 없애버리려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 와일드 포크의 이 역사적인 싸움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두 아이들과 두 동물들에게 달려 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고아 소년 틴과 시골에서 살던 소녀 콤프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어릴 때 부모님이 버리고 가버린 후부터 도시에서 별의 목사들의 ‘소유물’이 되어 매일 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틴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자투리 재료로 기발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도시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스타골드를 찾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틴과 같은 고아들에게 매일 그 귀중한 광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만한 돌을 분리하고 뒤지도록 했지만, 틴은 스타골드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 매일 밤 시간이 날 때마다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차량을 만드는데 주력해온 틴은 거

대한 거미 모양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믿기 힘들지만 이번 시도는 왠지 성공한 것 같았다. 조금만 손을 보면, 정말로 타고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을 진짜 거미처럼 기어올라갈 수도 있는 멋진 장치가 거의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 놀라운 장치에서 희망이 엿보일 때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별만 깜박이는 깜깜한 밤에 시골과 분리된 높은 장벽 너머에서 웬 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도시와 시골이 분리된 결정적인 이유는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면 전부 휩쓸어버린 무서운 전염병이었고, 그 일 이후 도시에서는 멸균, 살균 처리가 안 된 것은 어떤 것도 머무르지 못했다. 전염병과 세균을 옮기기 쉬운 동물은 가장 먼저 배제됐다. 우유와 고기를 생산할 소에 한하여 철저히 분리된 시설에서 단기간 사육하여 얼른 도축해서 쓰는 것 외에 도시에서는 새는커녕 벌레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틴은 별의 신부들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열을 거치고 겨우 남은 동물에 관한 책을 모두 섭렵해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한 때 사람과 더불어 살았던 동식물, 곤충들의 생김새와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이 아닌, 진짜 살아 있는 부엉이가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부엉이의 입에는 꼼지락 대는 토끼 두 마리가 물려 있었다!

이상한 일은 시골에 살던 콤프리에게도 벌어졌다. 열두 살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나간 어느 날, 엄마아빠,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산길로 소풍에 나섰다가 누군가 응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돌아본 콤프리는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며 가족들이 수시로 이야기하는 ‘와일드 포크’인 것 같았다. 사람들은 와일드 포크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무척이나 두려워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오래 전 대부분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염병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콤프리도 할머니나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들의 신비한 마법 능력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도 무섭지 않고 분명 또래 여자아이로 느껴지는 그 고양이도 콤프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안녕, 콤프리’하고 인사까지 건넸다! 마침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놀란 콤프리는 서둘러 가던 길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봤을 때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신기한 일이 있고 얼마 후, 콤프리도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말하는 두 토끼와 만난다.

사나운 코요테에게 엄마를 잃고 머리카락도 피부도 모두 초록색인 ‘그린 트윈’의 손에서 길러진 두 마리의 남매 토끼, 머틀과 멜로우는 서로 대립하며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 세상을 살려내야 한다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그린 틴과 만난다. 거미를 닮은 발명품 덕분에 도시의 경계가 된 거대한 벽을 넘어간 틴은 도시의 부당한 탐욕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가 아버지를 잃은 소녀 콤프리와 만나고, 넷은 힘을 합쳐 와일드 포크가 정한 계획대로 별의 목사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총 2부작으로 완성될 ‘스타골드 연대기’의 첫 번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실비아 린스테드(Sylvia Linsteadt)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소설과 시를 쓰고 있다. 고대 미신에 등장하는 야생 동물과 약초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저서로는 소설 『Tatterdemalion』이 있다.

제목 : THE MEMORY OF FORGOTTEN THINGS

가제 : 지워진 기억이 남은 세상

저자 : Kat Zhang

출판사: Aladdin/Simon & Schuster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미들그레이트 소설



★ “우리가 현실에서 깨닫는 연인과 따뜻한 마음의 중요성에 SF 요소가 가미하여, 상실과 갈망, 수용과 같은 진지한 이슈를 능수능란하게 탐구한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시간과 가능성을 탐험하는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열두 살 소피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 중 하나는, 열 살 생일 때 엄마가 만들어준 분홍색 케이크를 맛본 순간이다. 엄마가 정성 들여 올린 예쁜 색깔의 프로스팅을 조금 떼서 입에 넣고 느낀 그 달콤한 맛과 사르르 녹는 촉감은 언제 떠올려도 미소 짓게 한다. 지쳐 있을 때면 엄마가 와서 꼭 안아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던 목소리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것저것 소피아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주문하던 엄마의 활기찬 음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런 기억을 혼자 조용히 떠올릴 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엄마는 소피아가 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없지만 마치 계속 곁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함께 했던 일들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은 매일 소피아의 머릿속을 채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늘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놓치고 싶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된 어느 날, 소피아는 자신과 같은 신기한 기억을 가진 아이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그 아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 일처럼 떠올리는 능력 외에도 소피아와 또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드 안드레, 줄여서 디제이(DJ)라고 불리는 소피아와 같은 조 남자아이는 있지도 않은 양아버지의 얼굴과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너무 생생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주변 가족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지만 디제이에게는 꼭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가족처럼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일식을 조사해오라는 조별 과제를 준비하면서 부쩍 가까워진 소피아와 디제이는 생일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날짜가 아닌, 특별한 날이었다. 이웃들끼리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좁고 작은 이 동네에 개기일식이 찾아왔던 날 둘 다 태어난 것이다. 다른 주제도 아닌 일식을 조사하는 과제를 하면서 만나게 된 두 소피아와 디제이는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던 중, 믿기 힘든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문이 열리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면 자신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주변 환경, 즉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두 바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이유도 없이 떠오른 기억들이, 그저 과도한 상상력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정말로 벌어진 일이라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새로운 세상에는 엄마가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비극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거의 매일 밤 거실에서 흐느끼던 아빠의 울음소리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안간힘을 썼던 아빠와 소피아의 서글픈 노력도 다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 소피아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또 한 번의 일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니 처음부터 엄마가 없어진 적이 없던 것처럼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디제이도 마찬가지였다. 기억으로만 만나본 양아버지는 디제이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기회가 된다면 디제이 역시 그 영화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여기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온 학교가 다 아는 말썽쟁이 골칫덩어리가 된 소년, 루크까지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세 사람은 다가오는 일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셋 다 지금은 곁에 없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새로운 삶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과연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좋을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질까? 지금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상실감 때문에 놓쳐버린 것, 사라진 것만 떠오르지만 그 사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소소한 행복들이 다 사라져도 상관 없을까? 소피아와 디제이, 루크는 마침내 또 다른 인생의 문으로 들어서지만, 문 뒤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꿈꾸던 엄마는 정말로 눈 앞에 있었다. 소피아는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도 떠나온 삶과 똑같았다. 소피아의 방도, 방 안을 채운 가구와 자질구레한 물건들도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저녁 식사를 할 때쯤이었다. 엄마는 당연한 듯 2인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왜 아빠가 먹을 음식은 만들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안방이 좀 이상했다. 이전 세계에서 안방을 혼자 쓰던 아빠는 방에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장식 같은 건 전혀 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은 물론 벽에는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집에 아빠는 없었다. 소피아는 한참 망설인 끝에 엄마에게 아빠를 언급하지만, 이상한 반응이 돌아왔다. “주말에 볼 수 있잖니. 아빠가 그리운가 보구나. 불쌍한 우리 딸.” 왜 아빠를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일까? 함께 떠나온 루크에게 생긴 변화는 더 끔찍했다. 차 사고로 죽은 누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떠나왔는데, 누나가 살아있기는커녕 루크까지 그 사고로 즉사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제야 소피아는 바라는 것만 생각하느라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대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깊은 메시지가 담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캣 장(Kat Zhang)은 2017년 프리먼 상(Freeman Award)을 수상한 『THE EMPEROR'S RIDDLE』과 소설가 로렌 데스테파노로부터 “충격적일 만큼 독특한 이야기”라는 평을 받은 3부작 시리즈 “Hybrid Chronicles” (『WHAT'S LEFT OF ME』, 『ONCE WE WERE』, 『ECHOES OF US』)를 쓴 작가다. 해당 시리즈는 총 11개국에 판매됐다.